


공동체 소식



## 한가위

계절의 변화를 섭리하시는 하느님, 해와 비와 바람을 다스리시어  
저희에게 수확의 기쁨을 주시니,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께 오롯한 감사를 드리고,  
조상을 공경하며 가족과 이웃과 화목하여,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9월 기도지향

- 신임 본당 사제
- 캔사스 한인 카톨릭 공동체

추석 합동위령미사

오늘은 우리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비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조상들의 영혼이 평화와 안식을 얻도록 기도합니다.

총구역회 모임 (구역장 모임)

- 일시 : 오늘 교중미사 후
- 장소 : 본당회관

본당 야외미사

- 일시 : 10/4(주일) 11:00
- 장소 : Shawnee Mission Park (Shelter 8)
- 준비 : 가벼운 마음과 운동복

신신미사 전례에 대한 안내

- 예수성심미사 : 10/2(금) 오전 10시, 미사 25분전 '십자가의 길'기도 시작.
- 성모성심미사 : 10/3(토) 오전 10시, 10시에 묵주기도와 함께하는 미사시작.

주일학교 공지

- 다음 주일은 야외행사가 있는 관계로 주일학교 수업을 야외에서 합니다.
- (평상시; 초등부 교리-주일 오전10:00, 회관. 중등부 교리-주일 오전10:00, 성당지하)

교무금에 대하여

교무금의 부담은 신앙인의 기본 의무이며 신앙인이 받는 축복의 근원입니다. 어려운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월 평균 25가정이 교무금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물 한 모금의 정성에도 보답하시는 은총으로 축복합니다. (말라3,10 "너희는 십일조를 모두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양식이 넉넉하게 하여라. 그리고 나서 나를 시험해 보아라. —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내가 하늘의 창문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넘치도록 쏟아 붓지 않나 보아라.")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55	423	166/180	416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금주	정예찬 미카엘 이원준 요한	안광민 야고보 김준영 요셉
차주	안광민 야고보 김준영 요셉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박혜정 가타리나	김태중 예레미아 김시연 엘리사벳
차주	김주연 세실리아	김대연 요셉 장보혜 프란체스카

애찬 봉사자

금주	한가위 다함께 한 접시
차주	박혜정, 정연숙, 장남순

헌금 봉사자

금주	정수한 베드로, 김대성 사도요한
차주	문문주 엘리사벳, 고영방 스테파노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9/20	75명	352불	890불
이우석, 유영윤, 김대연, 장남순, 문석찬 (총 5세대) 특별헌금(맨하탄공동체, 100불)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 장 **홍순의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 회 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 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 오늘의 전례

오늘은 우리 민족의 명절 한가위입니다. 햇곡식으로 음식을 마련하고 조상들을 기억하는 추석 명절은,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함께 모인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평화를 기원하며, 마음을 모아 감사의 미사를 봉헌합시다.

### 그림 묵상

#### 어리석은 인간

풍선만큼이나 부풀어 오른 욕망의 덩어리를 내려 놓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 보입니다. 현실 속 유혹의 손길이 온 몸을 더듬고 유혹에 넘어가 먹고 마시며 즐기다 보면, 어느새 오늘 밤이 마지막일 수도 있음을 경고하십니다.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미사를 통해 세상의 탐욕을 경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새겨봅시다.

제 1 독서 : 요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2,22-24.26ㄴㄷ < 타작마당은 곡식으로 가득하리라. >

화 답 송 :



은 땅 이 여 노 - 래 하 - 며 주 님 께 찬 - 미 드 리 자 -  
 알 렬 루 야 알 렬 루 야 알 렬 루 야 -  
 알 렬 루 야 알 렬 루 - 야 알 렬 루 야 -  
 1. 새 로 운 노 래 를 주 님 께 불 러 드 러 라 주 님 께 불 러 드 러 라 -  
 2. 묘 - 한 일 들 을 당 신 이 이 루 셴 도 다 당 신 이 이 루 셴 도 다 -

제 2 독서 :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14,13-16 < 그들이 한 일이 그들을 따라가리라.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복 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2,15-21 < 사람의 생명은 재산에 달려 있지 않다. >

# 세 마

## “하느님의 은총”



하늘은 높고 말은 살피는 계절. 흔히 가을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한국인으로서 참으로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계절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네 계절은 우리에게 단조로움을 떠나 풍요함을 선사합니다. 이런 자연의 변화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감성과 생각을 갖도록 해 줍니다.

한가위에 맞게 오늘 독서 말씀은 모두 풍성함과 수확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엘서는 “주님이 너희에게 정의에 따라 가을비를 내려 주었다. 주님은 너희에게 비를 쏟아 준다. 이전처럼 가을비와 봄비를 쏟아 준다”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비는 하느님의 은총과도 같습니다. 농경 사회에서 비는 땅으로부터 소출을 내는데 절대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과학의 발전으로 예전보다 쉽게 물을 저장하고 필요할 때 쓸 수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 비는 절대적이라고 말할 만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총으로 땅은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리라는 것이 요엘서의 예언입니다.

한편, 요한 묵시록은 조금 다른 의미의 수확에 대해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연적인 수확이 아닌,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낮을 대어 수확을 시작하십시오. 땅의 곡식이 무르익어 수확할 때가 왔습니다”라는 천사의 외침은 이제 세상에 종말의 때가 왔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자주 종말과 심판을 나타내기 위해 곡식의 수확이라는 표상을 사용합니다. 마치 가을이 되어 곡식이 익으면 이것들을 모아 들여, 좋고 나쁜 것을 가리는 것처럼 종말의 때에 하느님의 심판은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한 일이 그들을 따라가기 때문이다”는 말씀은 한편으로 두려움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한 일을 잊을 수 있지만, 그 일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한 묵시록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신앙인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그리고 그들을 박해하는 이들에게는 무서운 심

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심판의 말 씀은 오히려 믿는 이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연을 통해, 풍성한 소출을 보여지는 하느님의 은총, 그리고 종말 때에 이루어질 심판 역시 무서운 표상들과 함께 소개되지만 결국 하느님의 은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복음은 부유한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유를 전합니다. 소출이 많아 그것을 모두 공간에 모아둘 수 없는 어떤 부유한 사람. 그는 궁리 끝에 공간을 새로 짓고자 하지만 그의 가장 중요한 목숨은 하느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이 비유의 가르침은 ‘모든 탐욕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는 공간을 가진 부유한 사람은 자신 만을 위한 더 큰 공간을 마련하는 해결책을 생각해 냅니다. 루카 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 부와 가난의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나 가난 자체보다는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나누지 못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의 비유 역시 부유한 사람의 해결책에는 이웃이나 나눔은 없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탐욕’의 예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은 한가위입니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처럼 한가위는 가장 풍성한 계절의 명절입니다. 돌아가신 조상들을 기억하고, 고향을 찾고 또 가족들과 함께 모여 정을 나누는 것은 명절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풍성함을 함께 나누고 즐기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우리의 눈이 주위를 둘러볼 수 있다면, 우리 이웃들의 어려움 역시 함께 생각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 주춧돌

## 최초의 순교자 스테파노 부제



초대교회는 신자들의 수효가 점점 늘어갔습니다. 교회 안에는 히브리말을 사용하는 유대인과 그리스말을 쓰는 유대인(그리스계 유대인)이 함께 공존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본토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립니다. “왜 거룩한 교회에서 우리 같은 그리스계 유대인들을 푸대접합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이야기를 들은 본토 유대인들은 “우리가 조사를 해보고 조치를 취할 테니 걱정 마십시오.”라고 안심시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리스계 유대인들은 불평을 터뜨린 것일까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사도 6,1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 수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교회의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은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본래의 직분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두 사도가 신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 놓고 식량 배급에만 골몰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사도들은 신자 중에서 협조자를 뽑아 그들을 도와주도록 했습니다. 협조자를 뽑는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기준은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와 봉사자를 선택하는 데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협조자가 뽑힌 다음에 사도들은 무슨 일

에만 전념하기로 했습니까?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사도 6,2-4

사도들의 협조자로 선택된 일곱 명의 부제 중 스테파노는 특별한 믿음을 지녔던 분입니다. 스테파노는 하느님의 은총과 성령의 힘을 가득히 받아 백성들 앞에서 놀라운 일들과 굉장한 기적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스테파노는 중상모략을 당해 유대인의 돌에 맞아 쓰러지게 되는 운명을 맞게 됩니다. 스테파노란 체육 경기에서 우승자에게 씌워주는 ‘면류관’이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이름대로 그리스도를 위해 최초로 순교하여 승리의 면류관을 쓴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스테파노는 죽기 전 예수님께 어떤 기도를 바쳤을까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사도 6.8-15 / 사도 7,54-60

스테파노의 순교는 교회에 대한 대박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예루살렘의 신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사건이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전파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강한 인상을 남기고 짧은 생애를 마감했던 스테파노 부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감동적인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 글 허영업 신부 | 그림 임의준 신부 -

## 사제를 위한 기도

- 영원한 사제이신 예수님,  
주님을 본받으려는 사제들을 지켜주시어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소서.
-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제직에 올라  
날마다 주님의 성체와 성혈을 이루는 사제들을  
언제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주소서.
-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제들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 사제들이 하는 모든 일에 강복하시어  
은총의 풍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 저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그들이 더없는 기쁨과 위안을 얻고  
천국에서는 찬란히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 ◎ 아멘.

